

찬란한 옥과같이 잘리고 잘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정행권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FAX: 245-7550
인쇄처: (주)중앙인쇄
Tel: (051)636-9477 FAX: 636-9478

본부 이사회 겸 국회의원동문 축하회 성황 제28대 집행부 본격 운영

고문 12명에게 추대장
자문위원 5명·부회장 57
명·감사 3명·이사 200여
명 각각 선임장 전달



7월 9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이사회 겸 국회의원 동문 축하회.

본부동창회 제28대 집행부 첫 이사회 겸 제17대 국회의원 동문(17명) 축하회가 지난 7월 9일 오후 7시 부산 코모도호텔 1층 총무홀에서 고문·회장단·양교교장(경남고 권명미·경남중 김철곤-16회)·국회의원·이사진·직능회장·기관장급 동문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행권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은 이날 제1부 이사회를 통해 권오현 동문(1회) 등 12명을 고문으로 추대했고, 박종근 동문(9회) 등 5명을 자문위원으로, 안강태 동문(11회·수석부회장) 등 57명(국회의원 17명 포함)을 부회장으로, 지난 3월 총회에서 선출된 방봉우 동문(10회) 등 3명을 감사로, 김근준 동문(1회 회장)을 비롯한 각 동기회 회장·총무와 추천받은 동문 등 200여명을 이사로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사회:김형석 사무국장·16회).

정 회장은 이에 따라 김근준(1회) 정소영(6회) 조대제(7회) 박동열 고문(8회)에게 추대장을, 자문위원을 대표한 최한성(9회), 부회장을 대표한 송규정(16회), 감사를 대표한 방봉우(10회), 이사를 대표한 황갑생 동문(4회)에게 각각 선임장을 전달했다.

▷관련 명단 2면에 이어 정 회장은 제2부 국회의원 동문 축하회를 통해 김병호(15회) 권철현(19회) 이재웅(26회) 조경태 동문(40회)에게 당선 축하패를 수여했다.

의원 동문에 당선축하패

이날 국회부의장인 박희태 동문(11회) 등 13명의 불참 의원 동문들은 "본회의 대정부질의 일정으로 불참하게 돼 죄송하기 짝이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

정행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부 제28대 집행부의 순항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국회의원 동문들도 적극 참여하는 열정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병호 권철현 이재웅 조경태 동문은 차례로 답사를 통해 한결같이 "용마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오늘 축하회를 통해 전 동문들에게 두고두고 은혜를 갚겠다는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재경동창회도 축하회

한편 재경동창회는 앞서 지난 6월 1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회를 개최했다.

천신일 회장(15회·세종 회장)은 박희태 동문 등 17명의 의원 동문에게 당선축하패를 전달했다.

본부 부회장 5개 위원회로 운영 회장단 간담회 두차례... 역할 극대화키로

본부동창회 제28대 집행부 첫 회장단 간담회가 지난 5월 31일과 6월 25일 두 차례(5월 31일-제9~22회·6월 25일-제23~38회) 부산 동구 범일동 일식전문점 대에서 열려 △조직강화 방안 △모교 60년사 편찬사업 △각종 행사 활성화 △모교지원사업 확충 등 현안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행권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 이어 고문 추대와 자문위원(신설)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선임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7월 9일 코모도호텔에서 열리는 본부 이사회 겸 제17대 국회의원 동문 축하회에서 추대장 및 선임장 등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박희태(11회) 국회 부의장에 선임

얼굴



"용마가족들의 성원에 항상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상생정치의 보루가 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쏟겠습니다."

5선 의원인 박희태 동문(11회·본부동창회 부회장·사진)은 지난 6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해 17대 국회 전반부(2004년 5월~2006년 5월) 부의장에 선임된 후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정계에 입문, 정치인으로 성공한 박 동문은 촛불살인(寸鐵殺人)의 비유와 해박한 정치해설 등으로 정계의 '명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패배 후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당을 무난하게 지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 동문은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나라당은 시대에 패배했다"는 말을 남겨 이 귀절이 한동안 회자되게 했다.

박 동문은 서울지검 검사·춘천-대전-부산지검 검사장·부산고검 검사장·법무부 장관·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권근술(14회) 평양 어린이병원 개원식에

초점



사단법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인 권근술 동문(14회·한양대 석좌교수·사진)은 최근 평양에서 '어깨동무어린이병원' 준공 기념행사를 치르고 돌아왔다.

이 병원은 남북어린이어깨동무가 북한의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와 함께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기술 자문을 받아 건립한 것.

분단 이후 남과 북이 협력하여 처음으로 세운 이 병원은 최신 의료장비와 어린이놀이방 설사진료실 치료과실 부설 쿠푸유아기저공장 등을 갖춘 건평 5천800평의 3층 건물이다.

권 동문의 열정으로 추진된 이 병원의 준공 기념식에는 동문 4명(김영우 손영목 오종철 조규향)과 초중등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각계 인사 96명이 참석했다.

특히 남한의 어린이들이 북한 어린이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은 분단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남북 관계사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권 동문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창간 산파역의 일원으로 참여한 이래 이 신문의 대표이사 사장과 고문 등을 역임했다.

울산지역동창회 임원 명단 (2004년)

사무국 TEL : 052-223-9247, 223-9248

고문

- 장원준(3회·경남대학교 일본문화 외래교수)
- 김기홍(4회·지역업)
- 김상식(8회·지역업)
- 유병철(9회·경찰공제회 울산의원 원장)
- 김성규(10회·사회복지법인 상애원·울산기독병원 이사장)
- 차수명(12회·전 국회의원·변호사)
- 김익도(12회·지역업)
- 조준택(13회·동강병원 부원장)
- 김형수(14회·(주)대호물류산업 대표이사)
- 정갑윤(23회·국회의원)
- 박맹우(25회·울산광역시 시장)

회장

- 양동건(18회·유화에너지(주)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 박덕봉(18회·대원SCN 부회장)

부회장

- 권정덕(19회·화진투자연구회 회장)
- 권영순(21회·울산대 교수)
- 박홍조(22회·삼우교통(주) 대표이사)
- 조장래(23회·(주)효성 상무이사)
- 서정득(24회·울산종합약국 대표)

박동건(25회·신경정신과의원 원장)

- 이영환(27회·법무사)
- 전학명(28회·전학명치과의원 원장)
- 왕도성(29회·프리우메디병원 미취과장)
- 최진곤(30회·농소약국 대표)
- 박춘열(31회·코끼리한의원 원장)

감사

- 김정은(17회·밝은사회 울산회 회장)

이사

- 김상희(4회) 김성출(5회) 변봉규(7회) 최병준(12회)
- 조준택(13회) 강호일(14회) 서정욱(15회) 김무영(16회)

김정은(17회) 민병근(18회) 권정덕(19회) 강경수(20회)

- 박일송(21회) 박홍조(22회) 여은호(23회) 김한태(24회)
- 손수일(25회) 민창현(26회) 정원재(27회) 권기택(28회)
- 김철수(29회) 김한실(30회) 최경침(31회) 박성규(32회)
- 김광경(33회) 김상환(34회) 이복근(35회) 박철중(36회)
- 이승열(37회) 김기현(38회) 진조석(39회) 최 현(40회)
- 이성기(41회) 황기동(43회) 강병국(47회)

총무단

- 사무국장 강경수(20회)
- 수석총무 신성수(31회)
- 총무 김광경(33회)·이승열(37회)·진조석(39회)

시평

허홍욱 (제19회)

부산대 사범대 교수 · 경남고 학교운영위원장



오늘날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이 '기대이하'라는 평가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깨를 겨루려고 한다면,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학생들이 기초 학문을 싫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도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이러한 학력 저하의 원인은 더 이상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입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입시제도만 탓하고 있을 것도 아니다. 2005학년도 입

창조산업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는 테크놀러지와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펼쳐지는 사회이기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적인 지식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지식을 습득하지만, 생각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한다는 것도 막연해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 엔진을 만들어야 하며, 바퀴(body)를 만들어야 하고, 바퀴를 만들어야 한다. 엔진은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책을 찾아보며,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묻고, 엔진을 만든 역사를 참

거석홍안(擧石紅顏)이라도 할 때

시요강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학의 정원이 2년제 대학을 포함해 74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3개 학년 194만명 정도이므로 한 학년이 대략 65만명 선이다. 이것은 산술적인 계산일 뿐, 인문계 고등학교는 42만명, 실업계 고등학교 22만명, 기타 1만명 정도로 보면, 실제 대학 진학 희망자는 대학 입학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을 입시의 불모로 잡아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생각하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은 자기 학교의 정원을 채우기 위해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손쉽게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제도를 바꾸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21세기는 크레비즈(Crebiz) 시대이다. 크레비즈는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Creative Business)의 합성어로서

고로 한다. 자재는 어디서 구하는가, 또 이것은 왜 만드는가 등도 생각해 야 한다. 만들어서 내가 팔 것인가, 판매할 것인가, 수지는 맞는가, 수출은 되겠는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는 미래사회를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깊은 생각과 충전을 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만 계속 써먹으면, 방전으로 인해 아무 것도 아닌(zero)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하나 둘 내 것으로 쌓아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가적으로는 교육의 제반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석홍안(擧石紅顏: 돌이라도 들어야 얼굴이 발갛게 된다)이라도 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한다.

본부 동창회 제28대 집행부 명단

구분	성명	회	직책	구분	성명	회	직책
고 문	권오현	1	전 부산일보사 사장	부 회장	남진현	19	뉴대양관광호텔 회장
	김근준	1	전 용마장학회 이사장		석무관	19	천연레포츠타운 대표이사
	정동식	1	재경동창회 명예회장		이용홍	19	(주)일신실업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김영삼	3	전 대통령		구영남	20	삼호산업(주) 대표이사
	류영렬	3	(주)왕도 대표이사		김진환	20	(주)대아건설 대표이사
	송두호	3	전 국회의원		최민석	21	유원산업(주) 회장
	정상천	4	전 국회의원		박재상	22	천일여객(주) 대표이사
	우명수	5	노인생활과학연구소 이사장		박홍조	22	삼우교통(주) 대표이사
회 장	주범국	5	전 경기은행장	유재진	22	뉴유창물산(주) 대표이사	
	정소영	6	유니온치과병원 대표병원장	김종규	23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	
	조대제	7	협성개발(주) 대표이사	박기욱	23	부산시의원 · 삼오정 대표	
	박동열	8	해운대성심병원 원장	태창업	24	태홍사 대표	
	정행권	9	(주)협성운수 회장	김진철	25	(주)디에스아이 대표이사	
	자문위원	박중근	9	동기회 회장	박상호	26	(주)신대양건설 회장
		최한성	9	국제전직공업 대표이사	윤정환	27	서진섬유(주) 대표이사
		한동대	9	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장	이원철	28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강진평		10	부광산업(주) 대표이사	최강호	28	진영수산(주) 피자사업부 대표	
오강욱		10	남산곡산(주) 대표이사	권두진	29	(주)해찬건설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안강태	11	대선조선(주) 대표이사	김대욱	29	(주)태화마린 대표이사
부 회장	오원수	11	대한제강(주) 회장	윤성덕	30	(주)태광 대표이사	
	강수현	12	DSG대동월페이퍼(주) 대표이사	최거훈	30	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남기웅	12	문교산업(주) 대표이사	박종규	31	법무법인 청해 변호사	
	이범경	13	산정농원 대표	박명진	33	(주)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상택	13	효산의료재단 생명원 이사장	류세호	34	남양석유(주) 대표이사	
	김영대	14	인천항도선사회 도선사	장인화	35	(주)화인스틸 대표이사	
	김형수	14	(주)대호물류산업 대표이사	정운성	35	(주)뉴부산택시 대표이사	
	명호근	15	쌍용양회 회장	우종완	38	(주)미 베이직하우스 대표이사	
	송규정	16	(주)윈스틸 대표이사	감 사	방봉우	10	이원회계법인 대표
	서정승	17	서정승산부인과의원장		박철병	23	성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길제	18	(주)MSC 대표이사	김태우		27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이성일	18	삼보산업 전무이사					

제33회 첫 가족동반 등산대회... 69명 장산서



제33회 용마가족이 장산에서 첫 동반대회를 치른 후 대천공원에서 기념촬영.

배종현 회장이 총지휘를 맡은 이번 행사는 69명(동문 36명 · 부인 18명 · 자녀 15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날 오전 10시 해운대신시가치 근교 폭포사 입구 대천공원을 출발한 일행은 체육공원~샘터~능선 안부를 거쳐 2시간 30분 만에 장산에 올라 기념촬영을 했고 마고당쪽으로 내려와 대천공원에서 합류했다(14:30).

제33회동기회 첫 가족동반등산대회가 지난 6월13일 부산 해운대 장산에서 열렸다.

동문 · 가족들은 신시가지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우정을 쌓았다.

제28회동기회 임원 명단 (2004년)

- ◎ 고 문 김명영 김용원 노영현 엄재홍 엄호성 이만수 이원철
- ◎ 회 장 강용수
- ◎ 부회장 강현안(수석) 김원홍 김준배 김정유 김정현 여청우 이승하 임원기
- ◎ 감 사 박영규
- ◎ 총 무 김치운
- ◎ 이 사 강대훈 구영소 계효경 김관세 김동수 김대운 김대성 김만중 김명준 김부윤 김상정 김영철 김우택 김용희 김준연 김철수 김창준 김태완 김형진 노승만 문형재 박병준 박성권 박용수 박일동 백영호 백선용 서영대 송재성 양종명 윤경섭 윤덕승 이경포 이대식 이만재 이원용 이인재 이재원 이종태 이진우 이철행 이하백 임재덕 장재용 전병철 정근재 정성목 정윤현 정현수 조영철 최강호 최연욱 최용석 최원배 한기웅 허남식 허영철
- ◎ 재경 회장(총무겸임) 황인업 / ◎ 울산 회장(총무겸임) 권기택 / ◎ 마창 회장 정영주 · 총무 정혜영

조길우(16회) 부산시의회 의장 재선



조길우 동문(16회·부산시의회 의장·사진)은 지난 7월20일 실시한 제4대 후반기 부산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재선출됐다.

지난 2월 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 '동창회 사상 첫 광역의회 의장'의 영예를 기록했던 조 동문은 지난 1991년 7월8일 출범한 부산시의회에 진출한 이래 4선 관록을 세웠고 건설교통위원장과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조 동문은 동기회 회장·본부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본부 용마장학회 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김형오(20회)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형오 동문(20회·국회의원·사진)은 4선 의원으로 최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발탁돼 대내외 조직관리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17대 총선에서 당이 제1야당으로 도약할 수 있게끔 기수역할을 했고, 6·5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들이 부산시장과 경남 및 제주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비롯,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으로 대거 진출하는 데 크게 활약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동 대학원 석사·경남대 박사·동 아일보 기자·국무총리실 및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역임.

김무성(24회) 국회 재경위원장 선임



김무성 동문(24회·국회의원·사진)은 최근 제17대 국회 재경위원장에 선임됐다.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동문은 YS(김영삼 전 대통령·3회)의 비서 출신으로 3선 의원이다.

삼동산업 대표인 김 동문은 민족연구소 상임이사·13대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재정국장·김영삼 후보 추대위 총괄국장·청와대 민정비서관·내무부 차관·이회창 후보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한나라당 염창동 새 당사는 친형인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의 소유이다.

박세록(10회) 샘코리아선교대회 개최



박세록 동문(10회·샘의료복지재단 대표)은 지난 5월22일 저녁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2004년 샘코리아선교대회를 개최했다.

개신교 장로인 박 동문은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샘의료복지재단을 설립, 대표로 활약해오고 있다.

이병태(11회) 미국서 정치학박사 학위

이병태 동문(11회·전 국방부 장관·사진)은 최근 미국 동부지역의 명문 터프스(TUFTS)대학 플레처스쿨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위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 동문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3~94년 국방부장관을 지냈으며 지난 1996년 미국으로 건너가 웨스트버지니아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2년 후 플레처스쿨에서 박사과정



중견 검사동문 8명이 최근 검찰인사에서 자리를 옮겼다.

김수민 동문(26회)은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서, 문규상 동문은 대검범죄정보1담당관으로서 서울중앙지검 8부장검사로서, 이영우 동문(이상 27회)은 서울고검 검사로서 대전고검 검사로서 각각 취임했다.

옥준원 동문은 수원지검 부장검사로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로서, 이춘성 동문(이상 28

에 들어가 만학의 열정을 불태웠다.

배정운(13회) 석탑산업훈장 받아

배정운 동문(13회·철강신문 대표이사·사진)은 지난 6월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5



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배 동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포스코에 입사, 요직을 거쳤으며 지난 1994년 6월13일 한국철강신문을 창간했다.

김수민(26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문규상(27회) 서울중앙지검 8부장

이영우(27회) 대전고검 검사

옥준원(28회)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이춘성(28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노동표(34회) 안산지청 부장검사

김형현(34회) 여주지청 부장검사

정인창(37회) 법무부 검찰3과장

회)은 법무부 공보관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각각 발탁됐다.

노동표 동문은 인천지검 형사4부장검사로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로서, 김형현 동문(이상 34회)은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로서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로서, 정인창 동문(37회)은 대전지검 공안부장검사로서 법무부 검찰3과장으로 각각 부임했다.

이창범(7회) 한국외교협 회장



이창범 동문(7회·이주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사진)은 최근 한국외교협회 제17대 회장에 선임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동문은 주호주 대사·주스웨덴 대사·본부대사(특1급) 등을 지냈다.

김창국(9회) 국제R 제3660지구 총재



김창국 동문(9회·김창국피부비노기과의원장·사진)은 지난 6월30일 국제로타리 제3660지구 총재(2004~05 회기)에 취임했다. 3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3660지구는 부산·제주시역 92개 단계를 로타리클럽을 통괄한다.

부산의대를 졸업한 김 동문은 본부동창회 부회장을 지냈고, 야구기금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부산대 의대 동창회장과 부산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환균(14회) 중소기업정책위원장



이환균 동문(14회·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세종대 경영대학원장·사진)은 최근 기협중앙회의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비상근)에 선임됐다.

서울대 법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이 동문은 행정고시(6회)에 합격한 이래 재무부 국제금융국장·청와대 경제비서관·관세청장·재경원 차관·건교부 장관 등을 지냈다.

배호원(22회) 삼성증권 사장 선임



배호원 동문(22회·사진)은 삼성생명 자산 운용본부 사장 겸임 중 최근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배 동문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삼성그룹의 비서실 재무팀 부장을 거쳐 삼성생명 투자사업본부장·삼성투신운용대표·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자산 및 법인부문 총괄사장 등 삼성 금융부문의 요직을 두루 맡아 와 자산운용부문 국내 톱 클래스 CEO로 평가받고 있다.

정홍원(17회) 변호사 개업



정홍원 동문(17회·변호사·사진)은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최근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 동문은 부산지검 1차장검사·서울지검 3차장 검사·서울 남부지청장·대검 검찰부장·광주 및 부산지검 검사장 등 역임.

이금희(18회) 한국방송협회장



이금희 동문(18회·MBC 사장·사진)은 지난 6월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르네상스룸에서 열린 한국방송협회 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선임됐다.

서울대 국문과와 중앙대 신방대학원을 졸업한 이 동문은 MBC PD·교양제작국 국장·전무이사·대구 MBC사장 등 역임.

이용흠(19회) 부산 펜싱협회장



이용흠 동문(19회·<주>일신설계 대표이사·사진)은 지난 5월13일 부산펜싱협회 제6대 회장(임기 5년)에 취임했다.

부산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이래 (주)일신설계를 이끌어 오고 있는 이 동문은 현재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부산광역시청 설계를 비롯, 다수의 공모전에서 당선된 경력을 갖고 있다.

성낙합(21회) 서울 중구청장



성낙합 동문(21회·서울 중구청장·사진)은 지난 6월5일 실시한 서울 중구청장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됐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성 동문은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한 이래 서울 지방경찰청 보안부장·형사부장·서울 남대문경찰서장·경찰대학 교수부장 등 역임.

하영제(27회) 최우수 공약상 수상



하영제 동문(27회·남해군수·사진)은 최근 지난 2002년 취임 당시 제시한 '섬마을 중구개발단지조성사업'이 전국 민선 3기 자치단체장들이 내건 공약 중 실천도가 높은 공약으로 평가돼 최우수 공약상을 받았다. 서울대 농대·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동국대 대학원(행정학 박사)을 졸업했다. 거창군수·진주시 부시장 등 역임.

성상철(21회) 첫 공채 서울대병원장 취임



성상철 동문(21회·정형외과·서울대 의대 교수·사진)은 분당 서울대병원장 재임 중 올해 처음으로 공개 채용한 서울대병원장으로 단독 추천돼 최근 취임했다.

성 동문은 지난 1973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쳤으며,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진료부원장·대한관절경학회 회장·한국노화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25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문재인 동문(25회·변호사·사진)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퇴임 3개월 만인 지난 5월16일 청와대로 복귀, 새로 신설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발탁됐다.

문 동문은 경희대 법정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22회)에 합격, 변호사로 출발한 이래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한겨레신문 창간위원·부산 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등을 지냈다.

진병화(21회) 국제금융센터 소장



진병화 동문(21회·사진)은 지난 5월11일 한국금융연구원 산하 국제금융센터 소장에 선임됐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진 동문은 행정고시(13회)에 합격한 이래 재경부 금융제도담당관·국고국장·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를 지냈다.

서경석(20회) GS홀딩스 사장

허창수(21회) GS홀딩스 회장

서경석 동문(20회·왼쪽)과 허



창수 동문(21회·오른쪽)은 지난 7월2일 각각 (주)GS홀딩스 사장과 회장에 선임됐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서 동문은 LG투자증권 사장을, 고려대 경영학과와 미국 세인트 루이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허 동문은 LG건설 회장을 지냈다.

최근 LG그룹에서 계열분리된 (주)GS홀딩스는 LG칼텍스정유·LG유통·LG홈쇼핑 등의 출자를 담당하는 지주회사이다.

Billboard

옛우정 주왕산 기슭에 꽃피고...

경팔회 졸업 50주년 기념회 겸 합동고회연

“어, 이게 누구야!”, “니, 몇 년 만이고!”, “정말 반갑구나!” 여기저기서 손을 맞잡고 더러는 께안기까지 하며...

봄날 경북 청송의 주왕산 기슭은 경팔회 졸업50주년 기념회 친구들이 연출한 감격으로 채색됐다.

1박2일 일정으로 이곳까지 온 용마가족들의 얼굴은 맑고 푸른 청송의 하늘과 산보다 더 청청했다. 못다 풀 회포는 첫날 점심식사 자리에서 저녁 단합회에까지 이어져 노래와 춤으로 절정을 이뤘다.

첫째날인 지난 5월28일 정오 청송 왕버들식당 연회장. 경북 용마가족 61명(부산 이성호 부회장 등 36명·서

울 이규환 회장 등 25명)이 감격스런 재회 속에 오찬을 나눴다.



경북 청송의 주왕산 기슭에서 경팔회 용마가족들이 졸업 50주년 기념회를 즐긴 후 기념촬영.

일행은 식사 후 뜨거운 정담을 간직한 채 달기약수를 맛보고 주왕산으로 발길을 옮겨 1, 2, 3폭포와 주왕굴 등을 관광했다.

이날 오후 7시 열린 주왕산관광호텔에서의 합동 고회연은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에 젖었다.

둘째날인 29일 일행은 청송 부동면의 청송얼음골로 이동, 주변의 풍광을 관광한 후 오후 12시10분 주방천 언덕배기에 있는 좋은식당에서 석별의 오찬을 하였다.

조봉석 총무(부산)가 사회를 맡아 회식 첫머리를 풀어내었다.

이성호 부산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구는 같이 살지 않는 아내라 했으니 영원히 기억하며 살자”고 말했다.

일행은 술잔을 한참 돌리다가 기다리고 있는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부산과 서울로 헤어졌다. “몸조심하라...”

이번 행사를 위해 서울에서는 추경석 박재범 지창수(각 30만원) 김영학 김호석 이창근 홍기성(각 20만원) 전영배 강성태 동문(각 10만원) 등이 협찬금을 쾌척해 큰 도움이 됐다.

전화 (051) 245-7551~3
팩스 (051) 245-7550

재경 경팔회 '탈피서' 열중

골프 박재범 문경희·바둑 배주원 우승
골프모임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지난 7월1일 안성CC에서 제131회 월례대회 개최(17명 참가).

남자부 우승 박재범(80타·-8)·준우승 김영길·3등 배주원·니어리스트상 이양희·행운상 조운제 동문. 여자부 우승 문경희(91타·-3)·니어리스트상 이정자씨.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7월3일 한일기원에서 월례대회를 개최, 우승 배주원·준우승 강성태 차지.

이유환 배주원 윤태영 전영배 신현주 김진석 이창근 강성태 노경현 동문

(도착순)이 수담을 벌였다.

14k 클럽들 노익장 과시

당구 최태만 2연패·바둑 배남순 우승

당구회(회장 오중철)는 지난 6월19일 OK당구장에서 월례대회를 개최, 14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이날 대회에서 최태만 선수가 지난 달에 이어 2연패를, 김진우 선수가 준우승을 했다.

기우회(회장 최병태)는 지난 6월13일 동기회관에서 김성부 김영주 김수용 배남순 백홍수 조용호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대회를 열어 배 동문이 우승을 차지.

김도선 생애 첫 출신원·우승반대호

골프회(회장 허 증)는 지난 5월27일 한화플라지CC에서 월례대회를 개최, 이날 김도선 동문은 라이언코스 16번홀에서 자신의 생애 처음이자 동기회사 상 최초인 출신원을 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18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우승 반대호·메달리스트 윤승홍·준우승 김익명·니어리스트 전재원·김영치 동문 차지.

25기우회 경부친선대국 벌여

제25회동기회(회장 김진우) 바둑모임인 25기우회는 지난 6월12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반도기원에서 재경기우회 회원을 초청, 경부친선바둑대회를 열었다.

김상수 25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수담은 서울에서 안대원 송유중 김옥철 최중덕 동문이, 부산에서는 김진우 동기회장과 김 기우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이뤄졌다.

'수' 받은 경열회 7월 수업

강남화요회(회장 김해룡)는 지난 7월27일 오후 12시30분 서초 기릿집순두부에서, 안산화요회(회장 박철민)는 13일 오후 12시30분 안산 중앙역 다릿목주어탕에서, 강북화요회(회장 김재환)는 6일 오후 12시30분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각각 모임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기상 6월 골프 대회서 우승

바둑모임 동수회(회장 김상태)는 24일 정오 회장 사무실에서, 골프모임 경열회(회장 이정배)는 22일 정오 자유CC에서, 테니스모임 정우

회(회장 최형백)는 15일 오전 11시 관문테니스장에서 각각 기량을 겨뤘다.

수락산 두 차례나 등정... 정력 넘쳐

한편 경열회는 지난 6월24일 자유CC에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대회를 개최, 우승 장기상·준우승 이민섭·3위 변완수·메달리스트 김연수·통계스트 안우만·니어리스트 진 강·행운상 최형백 차지.

등산모임 사니조이는 18일 수락산·10일 수락산·3일 청계산에 올라 심신을 단련했다. 분당토요회(회장 서진홍)는 모임을 갖지 않았다.



경주 수학여행 중 천마총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일육회 용마가족들.

일육회, 부부동반 40명 경주 수학여행

제16회동기회는 지난 6월 2~3일 경북 경주에서 제21차 수학여행을 실시, 천년고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김정균 회장이 인솔한 여행단 40명은 불국사~석굴암~기림사~무릉왕릉~국립박물관~천마총 등을 관광했다. 일행은 첫날인 2일 저녁 경주 보문단지 내 한식요리 전문점 대호에서 전야제를 치렀고(숙박 한국콘도), 뒷날은 불국사와 기림사 등을 둘러보고 감포항 대송횡집에서 오찬을 즐겼다.



14k 산우들이 설악산(왼쪽)과 지리산을 등정한 후 각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리산·설악산 쉬엄쉬엄 올라 체력 과시

14K 산우들 두 패로 나뉘

14K(제14회재경동기회) 산우들이 '두 패로 나뉘' 초여름 설악산과 지리산을 등정, 호연지기를 뽐냈다.

보석 쏟은 듯 별들의 잔치에 탄성

지리산패는 김장석 동문 등 8명이 지난 6월4일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다'는 지리산에 도전했다.

이날 오전 3시30분 삼삼재, 새벽 2시 남원마을을 거쳐 이곳에 온 일행은 연하봉~백소령~세석



산장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장장 23km를 15시간 만에 답파,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일행은 뒷날 다시 장터목~천왕봉 5km를 지나 백무동으로 하산하는 '지리산중주'에 성공했다.

일출 두 번 보는 행운 얻어

설악산패는 용인 분당산우회 김 민 동문 등 5명으로, 지난 6월1일 서울을 떠나 다리 아프면 쉬고 술 취하면 자고 쉬엄쉬엄 백담사~봉정암~중청~대청봉~천불동계곡까지 오르내렸다.

3박4일 일정 중 보름달도 보고 일출도 두 번이나 보는 행운을 가졌다.

제13-16회 첫 바둑 정례전 후배팀 6승3패 승전고 '동동동'

지난 5월15일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국바둑협회 부산시지부(부산 바둑회관) 특별대국실.

본부 용마바둑대회의 '영원한 호적수'로 회자되고 있는 제13회(회장 김장웅)와 제16회(회장 김정균)가 양측 기우회장(제13회 조원석·제16회 이채연)간 매년 정례적으로 한판 붙자는 전격협정(?)에 따라 우정 깊은 첫 한판승부를 연출했다(출전금 승자 10만원·패자 30만원).

제13-16회동기회 제1회 정기바둑대회로 명명된 이날 대국은 양측에서 강자

구분	제13회	승패	제16회	승패	구분	제13회	승패	제16회	승패
1장	조원석	×	박종봉	○	6장	최영환	×	김한선	○
			(백불계승)						
2장	이상삼	○	강원경	×	7장	한병조	×	김인국	○
3장	구덕건	○	김충길	×	8장	문기찬	×	신태규	○
4장	김영길	×	이채연	○	9장	안성문	○	송규정	×
5장	임용수	×	이명수	○	계	3승 6패		6승 3패	

순서대로 9명의 엔트리를 제출한 후 '총호선·다섯팀 우승' 원칙에 따라 열전을 벌였다. 결과는 제16회가 6승3패의 전과(별표 참조)를 올리고 첫 대회 첫 승전고를 올렸다.

대국이 끝난 후 선·후배 동문들은 근처 하나로퓨전정식집에서 갈비찜으로 단합회를 열었고, 식사 후 선배기는 장위축 안성문 동문, 후배기는 이명수 강중국 동문이 각각 한 팀이 되어 열기전을 벌였는데, 이 대국에서도 후배팀이 이겼다.

제16회 김정균 회장은 산회 직전 제13회 조원석 기우 회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고, 이채연 동문과 함께 동기회에 각각 10만원을 협찬했다.

제32회 동부회 회장 이관우



제32회동기회 동부지역회(부산진·연제·동래·금정·수영·남·해운대구) 창립총회가 지난 7월2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골목집에서 열렸다.

동기회 김태홍 고문이 주재한 이날 창립총회는 동문 15명이 참석, 초대회장에 이관우 동문(JR C&D 대표이사)을 선출했다.

제35회 새 회장 김민수

제35회동기회는 지난 6월25일 부산 하모니웨딩홀에서

04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김민수 동문(남성한의원 원장·사진)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정운성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김 신임회장은 "조직강화를 위해 소식이 끊긴 동문을 찾는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클럽법 활성화에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회장=김민수
총무=손수범 유병노



우승기를 앞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건 제39회 선수들이 정동식 명예회장(두 번째 줄 오른쪽서 두 번째)·김경희 고문(첫 번째 줄 오른쪽)·천신일 회장(같은 줄 오른쪽서 여섯 번째)·홍용찬 수석부회장(천 회장 왼쪽)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39회 5년 만에 패권 쟁취 재경 주최 제36회 기별야구대회... 준우승 SIXTY

최근 여러 야구대회에서 우승 행진을 한 막강 제39회가 지난 6월20일 도농구장에서 폐막된 제36회 재경동창회장기 기별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전년도 우승팀인 강호 제31회를 25-11로 물리치고 패권을 차지, 5년 만에 정상 재탈환의 감격을 누렸다. 특히 제39회는 내년 고향(묘교)에서 열리는 홈커밍데이행사에 우승기를 바치는 금의환향의 기쁨을 만끽하게 됐다.

이에 앞서 열린 3·4위전은 우천관계로 추첨, 제 19~21회 연합팀인 SIXTY가 전년도에 이어 3위를, 처음 4강에 오른 제 48~49

회 연합팀이 4위를 했다. 천신일 재경 회장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안성과 도농을 멀다 하지 않고 대회에 참가, 선전선투한 선수를 비롯해 정동식 명예회장님과 김경희 고문님, 진행·심판·구장 주선 등에 애쓴 여러 관계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올해 대회는 모두 29개 동기회의 2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지난 5월16일 중앙대 안성구장에서 개막한 이래 6월13일까지 전반 4주간은 이곳에서, 후반 준준결승전과 결승전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도농구장에서 치러졌다.



지리산 범안계곡 오송민박에서 경축회 동문들이 옛돼지바베큐 잔치를 벌이고 있다.

멧돼지 야유회

제6회 지리산 범안계곡서

제6회동기회는 지난 6월7일 경남 하동 화계면 쌍계사 근교 중턱 범안계곡 오송민박에서 야유회를 열었다.

이길상 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야유회는 칠순을 넘긴 30여명이 참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 정력을 보강시켰고 끼(?)가 넘쳐 노래방에서 열창대회도 벌였다.

제40회 새 회장 임태영

제40회동기회는 지난 4월22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대한통운빌딩에서 '04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임태영 동문(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사진)을 선출했다. 예진원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40여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 △ 회장 : 임태영
- △ 부회장 : 김강범 최민한
- △ 감사 : 한시용
- △ 총무 : 한수열(수석) 김용오 (이과 담당) 김성진(문과 담당).

울산 용마 한마음체육대회

울산동창회 제4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에 나선 선수들이 분부석에 인사를 하고 있다.

종합우승 홀수기 최다참가상 제18회

울산지역동창회 제4회 용마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5월22일 울산상고(교장 김 호·18회) 운동장에서 거행됐다.

양동건 회장(18회·유화에너지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지역회 고문단과 회장단, 본부동창회 정행권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부인 동반)과 김병수 총무부장(22회), 역내 동문·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홀·짝수기 대항 6개 종목(축구·야구·족구·피구·릴레이·줄다리기) 경기는 홀수기가 축구를 제외한 5개 종목을 석권,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최다참가상은 제18회, 종목별 최우수 선수상은 축구 민창현(26회)·야구 서기룡(27회)·피구 박해성 동문(31회) 부인·족구 김정대 동문(18회)이 각각 수상했다. 앞서 양동건 회장은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역대 회장님들의 열정으로 뿌리를 내린 이 대회를 정성을 다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정행권 본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마음체육대회가 동문·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촉진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운동장 주변에는 집행부측이 포장마차(전세)와 생맥주센터 등을 운영, 동문·가족들은 늦게까지 정담이 무성한 여흥을 연출했다.

△본부동창회=금일봉 △김성규(10회·직전회장)=30만원△유병철(9회·6대 회장)=20만원△이학송(11회)=10만원 △제27회 동기회=30만원 △조장래(23회·효성 상무이사)=100만원(광고협찬) △강호일(14회·지역사 대표이사)=20만원 상당 치약 △서정욱(15회·직전 사무국장)=20만원 상당 과자류 △제18회동기회=30만원 상당 양말 △박홍조(22회·부회장·삼우교통 대표이사)=20만원 상당 타올 △김규현 동문(27회·해인한의원장)=20만원 상당 타올.

마-창 가족사랑체전 '덩더쿵'

마산·창원동창회 제26회 가족사랑체육대회에서 선수들과 응원단이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홀·짝수기 공동 우승 최다참가상 제32회

전통을 자랑하는 마산·창원지역동창회 제26회 가족사랑체육대회가 지난 5월16일 창원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김진환 회장(20회·대아건설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회 고문단과 회장단, 본부동창회 정행권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과 김병수 총무부장(22회), 역내 용마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6년째 이어오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용마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정행권 본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통의 가족사랑체육대회가 동창회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용마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3회)은



축하메시지를, 진주지역동창회와 노기태 동문(20회·부산상의 상근부회장)등은 화환을 보내와 격려했다. 제1부 기념식에 이어 벌어진 홀·짝수기 대항 경기는 양팀이 서로 비겨 공동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최다참가상은 제32회동기회가 수상했다.

한편 행사장은 열띤 경기 속에 흥정일 동문(10회)의 질녀 추소정양(중앙대 약대 보컬 리더 싱어)의 멋진 노래와 마산생지여고

생들이 펼친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 등으로 축제의 분위기가 절정을 이루었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다참가상 : 제32회동기회
△최우수선수상 : 백수현 동문(35회) 부인 △우수선수상 : 이양춘 동문(26회) 부인 △감투상 : 장정표 동문(21회) 부인 △인포상 : 안병남 동문(35회) 부부 △비둘기상 : 김재근 동문(19회) 부부 △행운대상 : 김 관(14회).

클릭!! 클릭!!



본부동창회 홈페이지는 용마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동창사회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kyungnam.or.kr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하십시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서면 GOLF 회원권 매매전문

골프, 콘도, 헬스회원권, GOLF채 부동산매매



회장 여성렬



보라 에덴밸리·장산 애운대 C.C. 회원모집 분양주관사

서면골프:부산시 진구 부전2동 524-13 (서면공작항터널 입구)
TEL: 803-0854~5, 804-1811, 805-0707, 807-0707
817-0806~8, 818-0707, 819-0707
FAX: 804-1810 H.P: 011-854-0707

총무골프:부산시 서구 중무동 1-10 (총무동로타리 지하철입구)
TEL: 241-4344~5, 241-6641~2, 254-0707 FAX: 241-6643

서면부동산 TEL: 815-3355~9, 080-001-3366 FAX: 815-3366 (서면골프2층) 상가점포, 임야, 대지, 건물, 매매, 교환전문

예술과 자연이 조화된 공미 코스 27홀!
소수회원제, 주말 부킹가능,
Factoring 5년 할부분양
정회원 및 지정인 그린피 면제!

080-201-7777

E-mail: seomyengolf@hanmail.net
http://www.smgolf.net

본부 회기 기증에 미국선 성금 쾌척

중서부회 1,000달러 · 북가주회 300달러 모아 기탁

**총회 때 회기 첫 사용
중서부 최윤환 회장(14회) 유임**

미국 중서부(시카고 중심)와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중심)의 용마가족들이 동창회발전기금을 모아 부산에 있는 본부동창회에 기탁, '아름다운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중서부동창회는 지난 4월 25일 오후 6시(현지시간) 시카고 시내 뉴월드뷔페(18회 조삼래 동문 경영)에서 최근 본부동창회 기증한 '미국중서부동창회'라는 로고가 수놓아진 회기(會旗)를 앞세우고 '04정기총회를 열어 최윤환 회장(14회)을 유임시켰다.

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명(부인 10명 포함)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하고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켰다.

특히 이곳 용마가족들은 평소 본부동창회가 해외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격려와 함께 관심을 쏟아주는 데 대해 감사, 이날 총회를 통해 본부동창회발전기금 1,000달러를 모금해 송금했다.

본부동창회 정행권 회장은 지난 4월 초 최윤환 회장으로 부터 '미국 대륙의 심장부인 미시간 호반을 중심으로 한 용마들의 자긍심 고취와 조직 활성화, 역량



미국중서부동창회 동문들이 본부에서 기증한 회기를 펼쳐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결집에 필요한 회기(공식 명칭: 미국중서부동창회)를 본부에서 제작해 보내주면 4월25일로 예정된 총회 때부터 사용하겠다'는 서신을 받고 이를 제작, 기증했었다.

미국중서부동창회는 이에 따라 이 회기를 용마가족들의 끈끈한 우정의 상징으로 삼아 총회·신년회·송년회·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길흥사 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중서부동창회에는 좌장적인 김봉현·김광수 동문(이상 5회)을 비롯, 50여명의 동문들

이 결집되어 있다.

**북가주 추기석 회장(11회)
본부 방문 직접 전달**

한편 미국북가주동창회는 최근 열린 임시총회에서 동창회 발전기금 300달러를 모금, 추기석 회장(11회·경남고 교장을 역임한 추월영 은사 아들)편으로 본부에 기탁했다.

현재 북가주동창회에는 좌장적인 김영부 이상진 박영돈 동문(이상 3회) 등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14년 젊게 한 드라마 '아, 한라산!'

재경14회 용마가족 한라산 등정기 [이관운]

제14회재경동기회 용마가족들이 녹음 청정한 제주도 한라산 등정에 성공, 모두들 드라마 '아, 한라산!'의 주연·엑스트라·감독을 맡아 "14년은 젊어졌다"고 기염(?)을 토했다.

지난 6월12일 오전 8시30분 안개 짙은 제주항. 전날 오후 7시 1만6천톤급 화객선 오하마나호를 타고 인천항 부두를 빠져나왔던 동문 28명과 부인 13명은 길고도 지루한 칠혹의 서해 바다를 향해한 탓인지 지친 기색들이었다.

그러나 이내 원기를 되찾아 버



스로 성판악까지 이동, 오전 9시 30분 백록담을 향해 9.6km(4시간 예정)의 도전에 나섰다. 선두와 끝지는 1시간 차이. 아

한라산 등정을 무사히 마친 14K 용마가족 41명이 카메라 앞에서 환한 표정을 지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제6회**
具河書=(이사)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49(낙산부락). 055-343-7121
姜大垣=(자택이사)부산 북구 구포동 1103-2 현대아파트 101동 1403호. 051-332-7269, 017-399-1262
鄭泰坤=(자택이사)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194 051-243-1139
김성수=(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신동타워 아파트 102동 1601호 051-527-3503

- 제8회**
廉炳泳=(자택이사)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320 래미안 이문2차 아파트 101동 801호. 02-964-1324
김태규=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966 주공 그린빌 114동 204호 031-963-2966
김동규=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2동 강촌 우방마을 812동 1307호 031-902-9985
최재혁=055-551-7625
이창근=6월25일 서울 강남 소망교회에서 딸 민희양 결혼

- 제7회**
李昌範=4월28일 한국의교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7대 회장으로 선임

- 제9회**
趙東勳=5월26일 일시 귀국. 동기회사무실에 방문 찬조금 20

- 어디서 무엇을**
만원 전담
田國祚=병세가 호전되어 동의의료원에서 퇴원하고 자택에서 요양중. 051-244-3676
尹亨遠=전 충남대 총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교육학회 회장.(자택이사)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520-1 열매마을 808동 1201호. E-mail:covmountain@hanmail.net

- 제10회**
文昌海=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

성취감 안겨주는 산상 수석전시장

재경 경팔산우회 월출산 종주기 [정형수]

'달이 뜨면 더욱 아름답다'고 해서 이름한 월출산. 경팔산우회 회원 5명(회장 김영철 김태용 문규환 임영택 정형수)이 월출산에 올랐다. 6월8일 오전 열차편으로 용산역을 떠나 전남 나주에서 택시로 월출산 도갑산장에 도착, 1박했다. 9일 아침 일찍 도갑사~억새밭~구정봉~청황봉~구름다

의 그 시원한 맛과 시내 목욕탕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지긋이 눈을 감아보는 황홀함. 오후 3시30분. 서울로 향하는 우등고속버스 안에서의 맥주 파티. 적당이 흔들리는 버스의 넓고 폭신한 좌석에 앉아 행복한 잠에 빠져 들어가는 신선들의 세계, 서울에서 가진 해단식. 삼겹살에 소주잔을 기울이



기암괴석이 병풍을 둘러친 듯한 월출산의 최고봉인 천황봉

리~천황사 종주코스(8.5km)를 7시간에 완주했다. 미왕재에 펼쳐지는 광활한 억새밭,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절경. 가마솔 같은 웅덩이가 9개나 있는 구정봉, 구정봉에서 바라보는 웅장한 천황봉(812m), 120m의 절벽 위에 매달린 월출산의 명물 구름다리(52m) 등등... 험하고 가파른 바윗길을 오르고 또 오르고, 내리고 또 내려 산행을 끝내고 영암 쪽 산자락 아래에서 마시는 캔맥주

는 환한 얼굴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가득 차 있었다. 돌아오는 고속버스 속에서 김태용 동문이 한 다음 말은 지금도 귓전에서 새롭다.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도 명산이지만 월출산처럼 성취감을 안겨주는 산은 없었다"라는 말에 "벌써 올랐어야 할 명산을 칠순을 넘긴 지금에서라니..." 하고 웃을 친구들도 있었지만 늦게나마 가 본 우리들을 너그러히 받아주시기를.

뿔사! 정상은 눈앞에 두고(해발 1850m) 정현호 동문이 심한 두통으로 부인(이미자)의 부축(?)을 받으며 왔던 길로 하산하는 '돌발사고 1호'를 기록했다. 39명이 한라산 정상에서 "야호!"를 외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관음사 쪽 8.7km길로 하산을 재촉했다. 2km쯤 내려왔을 때였다. '돌발사고2호'가 터졌다. 박종숙씨가 왕관바위를 지날 무렵 다리에 쥐가 내려 주저앉았다. 박진 산행대장은 관음사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 김태회 동문에게 SOS를

때려 구조토록 지시한 후 나머지 37명을 이끌고 제주항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천신만고 끝에 출항 직전 극적으로 합류, 박수를 받았다. 귀가길 선상파티는 노방현-김경순 커플의 현란한 탱고춤과 김용후 신수범 이창화 동문의 안주·생맥주 공급으로 절정을 이뤘다. 13일 오전 8시 인천항은 '41명 전원 무사 귀향' 성취감으로 한참동안 술렁거렸다.

- 017-358-8845
尹奉燾=(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중동 1360 롯데 낙천대 아파트 106동 2901호 051-747-0456

- 제11회**
崔泰源=5월17일 서울올림픽웨딩문화센터 1층 무궁화홀에서 장남 석운군 결혼. 02-993-9577, 011-303-9576
郭正出=5월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아들 재원군 결혼. 서울 서초구 방배1동 884-21 대림 e-편한세상 101동 1001호. 02-582-3390, 011-591-0070

이 자리는 보고싶은 용마가족들이
근황을 전하며 만나는 우정의 광장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국내의 거주하는 동문 여러분께서는
동기회나 본부동창회로 소식을 보내십시오.

<6면에 이어>

제11회

金容滿=6월6일 새마당예식장에서 장남 경진군 결혼. 051-746-5272, 011-9519-5272

柳興洙=5월27일 부산 민락동 지중해뷔페에서 수많은 내빈, 친지, 정당관계자들의 축복을 받으며 명예로운 정계은퇴 송별인사회 가짐

朴燾太=국회의원. 6월7일 제17대 국회부의장에 당선

李祥喆=부산 남구 대연4동 1013-8 2층, 051-622-5433, 016-9663-9929

李在陽=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5-5 (5/2) 송원다방 5층, 051-809-4367, 016-543-4320

崔得鎬=(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웅상을 평산리 163 선우아파트 404동 1306호, 055-367-1185, 010-2210-7016

甘錦讚=(자택이사)경남 김해시 내동 현대3차아파트 304동 1306호, 055-336-2062, 011-9521-2062

崔龍圭=선일도장, 051-634-0933, (자택이사)부산 연제구 연산3동 1875-16 3층, 051-853-6487

尹草山=6월20일 부산 범일동 금호예식장에서 장남 덕중군 결혼. 부산 영도구 동삼동 510-7 도개공아파트 204동 1605호, 011-859-0092

李炳台=미국 터프스대 플레처스쿨에서 정치학박사 학위 받음

제13회

黃善雄=5월16일 골든웨딩홀에서 딸 결혼

朴晏孝=5월18일 부친 별세

曹光秀=6월1일 모친 별세

제14회

李文燦=5월23일 서울 남서울웨딩홀에서 차남 강석군 결혼

愼升緯=5월29일 역삼동 상록회관에서 차녀 채홍양 결혼

高萬秀=6월5일 대치동 코스모

제25회

金經桓=(주)스텝디자인 대표이사 회장.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8-8 유진빌딩 2층, 02-571-1082, www.staffdesign.co.kr

李永洙=라그리니치과 대표원장 의학박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5 2층(현대아파트 84동 건너편), 02-542-0707, 분당 라그리니치과 개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2 분당클리닉 빌딩 4층, 031-710-9610

이윤택=국립극단 예술감독, 7월 16일 모친 별세

제26회

李鍾振=한국감정원 경영지원부

타워예식장에서 딸 현강양 결혼

陳善大=6월13일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에서 차녀 윤희양 결혼

具滋信=5월8일 차남 본진군 결혼

李成雨=5월19일 빙모 별세

李載敦=사단법인 대륙전략연구소 소장, 6월1일 중앙대 문화예술회관 9층에서 '민족주의 명분과 실리' 주제로 중앙대민족발전연구원과 공동포럼 개최

潘泰鎬=반대호법무사사무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17 흥국생명빌딩 613호, 02-752-6829

河贊奉=법무사사무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91 대양빌딩 706호

尹昌燮=(주)CMMI컨설팅 설립 대표이사 취임, 031-965-8079

趙鍊濟=(상호변경)세화기술(주) 회장,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12-10 성암빌딩, 02-583-9457

李義雄=(주)퍼스트 로지스 설립 회장 취임, 02-6435-4066

김홍준=SK건설(주) 경영고문

金榮雨=6월6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들 무성군 결혼

朴辰載=6월13일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차남 강당에서 차남 선수군 결혼

朴基正=재미 의사, 5월29일 New Jersey Rocking Country Club에서 딸 세화양 결혼

崔泰萬=6월12일 빙모 별세

鄭正華=6월21일 부친 별세

제15회

金鍾垠=(자택이사)부산 영도구 동삼1동 510-27 벽산비치아파트 101동 1203호

李勝男=(자택이사)부산 금정구 청룡동 633-4 (7/4) 구남타워아파트 701호

金洋一=법명 자하스님, (주소변경)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29-3 아나 법화 연수원, 051-723-2263

李七星=(전화변경)010-6771-2545

姜茂松=(전화변경)(자택)051-248-7495, 010-6787-7895

제27회

정정길=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6월21일 부친 별세, 011-9905-1708

이종찬=외환은행 부산지점장, 051-469-3709, 011-9711-2128

金元大=6월14일 장인 별세

李英煜=(부산)빅센타이어 연구소장, 6월5일 장모 별세, 011-499-1435

徐明植=(사무실 이전)삼아시스템,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6 한신사이릭스 동관 1610호, 02-2149-8884~5, 팩스 02-2149-8881, 011-9001-5307

玉明勳=5월23일 별세, 6월13일

蔣鍾浩=(개업)051-988-5566, 팩스 051-988-8460~1, 011-889-5555

李鍾明=6월20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장녀 수경양 결혼

全東錫=6월27일 부산 남구청 오륙도웨딩홀에서 장녀 민정양 결혼

李昌一=(전화변경)051-253-8898~9, 팩스 051-253-8897, (자택)051-896-7701, 017-552-8624

이요셉=신우회 회장, 6월5일 금정산 남문 수박샘에서 제3회 정기모임 주재

제16회

姜軫中=5월17일~21일 진주 경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뒤돌아본 사반세기' 사진전 개최, 055-752-1400

李採彥=인제대 의대 교수, 5월 29일 장남 민호군 결혼

權命石=인지중학교 교장, 6월5일 장녀 정원양 결혼

李良根=(자택이사)경남 밀양시 가곡동 577-46, 055-531-0784

權福述=김해 명문약국 대표, 6월17일 새김해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 취임

장사충=성결병원 마취과장, 051-610-7110

이중철=부산산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취임

김광용=부일신경외과 원장, 051-201-3008 배내골 막걸리 한상자 동기회 기증

제17회

鄭煥原=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 14층, 02-2188-1000 팩스 02-2188-1091

제18회

金炳學=대신여자중학교 교장, 051-248-1811

崔喜英=부산 연제구 연산9동 한양아파트 21동 207호, 010-3925-6607

河榮一=부산 해운대구 좌2동 경남선경아파트 119동 2104호, 051-702-4172

朴榮一=부산 해운대구 좌동 건영아파트 310동 402호, 010-3929-5641

李點峯=대구 구남중학교 교장, 011-820-1590

鄭鈺炳=경북 경산시 사동 부영아파트 207동 104호, 053-818-3558

鄭 洪=대구 계명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 016-9750-5264

이승준=협성농산(주) 생산본부장, 상무, 011-525-2505

金址浩=참스라인 대표, 011-9709-3217

金鍾琴=부산 사하구 당리동 180 반도보라아파트 102동 1205호, 051-291-3495

金武源=부산 서구 압남동 현대아파트 102동 1101호, 051-256-0578

金俊吉=(주)한양공업 대표, 051-321-0005

千斗甲=유니코상사 대표, 019-449-0012

韓靈璇=한신엔지니어링 대표, 051-463-8022

裴世元=부산중학교 교장, 051-464-5201, 016-9668-5723

金鍾喆=김종철세무회계사무소 소장, 051-853-1601

李鎬國=5월16일 대림오페라웨딩홀에서 장녀 현경양 결혼

安昌範=5월14일 부친 별세

金炳旭=5월13일 모친 별세

金永秀=4월29일 부친 별세

閔成根=4월15일 별세

金炳洙=전주공사현장, 평화 TCM 기계설비 감리, 전주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017-279-7453

金思權=동래경찰서장, 051-552-0112

金喆用=연제구청 총무국장, 051-665-4200

金憲武=대구대 법정대 교수, 053-850-6121

朴貴煥=(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감리단, 051-247-0208

李大運=호수약국 대표, 051-621-

5531
崔康登=정공산업(주) 대표이사, 051-261-2911

제21회

姜榮徒=삼성통증의원 원장, 4월 30일 모친 별세, 011-846-7938

姜洙慶=(휴대폰변경)010-4800-6040

朴周坪=장금상선(주) 전무이사, 051-950-3535, 019-9488-1815

朴春成=(휴대폰변경)010-3999-4503

韓秀敏=5월9일 부친 별세, 011-599-4672

朴利潤=한국주철관 전무이사, 5월17일 모친 별세, 011-875-3401

金浩聖=장유포리테크 대표,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657-3, 055-323-4548, 011-590-7677

許永道=011-9310-3726

趙虎濟=5월24일 부친 별세, 011-884-3119

吳盛模=5월25일 부친 별세, 016-436-3023

양병주=5월30일 부산예식장에서 장남 현 군 결혼

손학권=5월23일 부산 롯데호텔 2층 에머럴드 룸에서 장녀 소라양 결혼

최낙환=5월22일 중앙동 파크웨딩홀에서 장녀 결혼

제24회

朴將虎=(자택이사)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311 삼성래미안2차 아파트 104동 1902호, 02-967-3416, 019-212-3311

제25회

安泰吉=의료보험관리공단 밀양지사, (개업)파랑새노래방, 5월 27일 밀양시 내이동 밀양시청 서문열, 055-355-1774, 011-853-6143

吳揚得=(개업)골프클리닉센터, 해운대구 우동 마리나센터 3층 헬스클럽내, 051-731-3200

제29회

田鉉秀=(병원이전)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26 패밀리씨르망빌딩 401호, 02-400-2911, 017-620-7729

제32회

이관우=동부지역 동기회장(주)JR C&D 대표이사,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398-19 대아빌딩 2층, 051-758-8877, 홈페이지 www.seed50.com 011-847-5556

기영수=(주)원테크 상무, 011-591-6868

김정규=삼진정기(주) 이사, 011-846-3754

김종식=미래철강(주) 대표이사, 011-865-0939 엄궁 철강단지 빌딩 203호

김태홍=동기회 고문, 한림학원 원장 011-847-7515

박종우=부산일보 광고국, 011-872-4404

윤종걸=가인상사(LG화장품대리점)대표, 011-860-8772

이병훈=이병훈공인회계사 대표, 011-836-6263

이상현=대광종합물류 대표, 011-9544-8387

이환용=용현중학교 교사, 011-588-8943

전철홍=아이티 Leed 대표, 016-552-1292

정준환=원해방사선과 원무부장, 018-760-6081

부산 해운대 BEXCO 그랜드홀에서 딸 승희양 결혼

金元用=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이자 뉴미디어기술연구소 소장, IGI(Institute for Graphic Interfaces) 원장, 019-529-3513

金泓昌=제일투자증권 관리대표, 011-9524-9751

朴贊龍=부산MBC 광고사업국 부국장, 051-760-1092, 011-575-6180

金勳鐸=(사무실 이전)아이비즈 닷컴, 서울 서초구 잠원동 19-1 경아빌딩 9층, 02-3443-3735, 팩스 02-3443-3840, 011-368-5530

金黃烈=법무사 김형열 김수철 사무소, 부산 서구청육교 건너 맞은편, 051-241-4455, 011-590-3434

장, 02-2189-8400, 011-298-3178

제 16회 2연패 - 23A · 28회 첫 패권

본부 기별용마바둑... 제13A · 22 · 29회 준우승

지난 6월27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린 제4회 본부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에서 제 16 · 23A · 28회(이상 각 중 · 장 · 청년부)가 우승, 감격을 누렸다. 제16회는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제23A · 28회는 첫 패권의 영광을 안았다.

제11회를 비롯, 모두 21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스위스리그전으로 펼쳐진 대회에서 중년부(제11 · 13회A · 13회 B · 14 · 15 · 16회)는 '철옹성'의

제16회가 결승국에서 기왕(棋王)에 등극했다.

제11 · 15회는 각각 3위와 장려상에 그쳤다.

제17회A · B팀과 제18 · 20 · 22 · 23A · B팀 · 24회팀 등 8개팀이 겨룬 장년부는 결승국에서 제23A가 제22회를 격퇴, '천하통일'의 위업을 세웠다.

제24 · 17회A는 각각 3위와 장려상에 랭크했다.

청년부(제25 · 27 · 28 · 29 · 30 · 31 · 31회 연합)는 결승국에서 제 28회가 '용장'을 자랑하는 제29

회를 물리치는 이변을 연출,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제27 · 25회는 각각 3위와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특별이벤트로 마련한 프로기사 김준영 4단 지도의 다면기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200여 기사 · 응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기념식은 내빈 및 집행부 소개, 김동회 용마바둑회장(18회) 대회사, 정행권 본부회장(9회 · 협성운수 회장) 격려사, 대국진행규정 및 대진 발표, 격려금 협찬자 소개 등 순으로 진행됐다(사회 임강택 용마바둑회



지난 6월27일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린 제4회 본부동창회장기 기별대항 바둑대회.

김원대(27회) · 정정남(31회) 다면기서 승리 거뒀

이날 오후 2시경 열린 프로기사 김준영 4단 지도의 다면기는 전성광(17회 · 5점) · 박병천(20회 · 4점) · 하종기(23회 · 7점) · 최태영(24회 · 4점) · 김원대(27회 · 5점) · 정정남(31회 · 5점) 등 6명이 출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 4단으로부터 자상한 다면지도를 받은 이들 6명은 저마다 기량을 한껏 발휘했으나, 김원대 · 정정남 두 동문만 이겼고, 나머지 4명은 졌다.

김 4단은 "6명 모두의 기력(棋



프로기사 김준영 4단(왼쪽)이 전성광 동문(17회) 등 6명을 상대로 다면기 지도하고 있다.

力)이 수준이상"이라고 평가한 후 "김원대 · 정정남 기사의 기량은 한국형 행마로 불리는 21c행

마법 구사가 돋보였으나 중원 전 개법 등에 연구를 하면 기량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에 이어 열린 1시간여에 걸친 단합회를 끝으로 산회했다.

김동회 회장(18회) 유임 본부 용마바둑회 정기총회



본부동창회 용마바둑회는 지난 5월27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동림빌딩 2층 부산바둑회관에서 2004년 정기총회를 열어 김동회 회장(18회 · 상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사진)을 유임시켰고, 부회장과 총무 선임은 김 회장에게 위임했다.

김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강수경 감사(21회)의 감사보고에 이어 결산안을 통과시켰고 임원을 개선한 후 제4회 기별대항대회 계획안을 승인했다.

제30회 '우승야호' 승학산 메아리

본부 기별 등산대회... 제20회 준우승 · 최다참가상

지난 5월23일 열린 제5회 본부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등산대회에서 제30회동기회가 종합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이날 오전 10시40분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 승학캠퍼스 정문 앞을 출발한 126명의 산우들(가족 19명 포함)은 승학산(11:50)~구덕산 안부(12:50 · 중식 후 13:50까지 휴식)~꽃동네(14:10)~경남고(16:00) 코스에서 5시간 20분간 건각을 자랑했다.

정준수 용마산악회(15회 · 부산대 교수)이 주재한 이날 대회는 오후 4시30분 모교 경남고 체

육관 앞에서 폐회식을 거행했다.

정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각 동기회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선전한 선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용마산우들의 역량결집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활력소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종합우승한 제 30회에 우승기를 수여했다. 종합 준우승은 제20회, 종합3위는 제 21회가 차지했다. 또 최다참가상은 19명이 출전한 제20회, 환경보호상은 제15회, 감투상은 제22회, 장려상은 제16, 17, 31, 32, 33,

34회가 각각 받았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10시 거행된 발대식에서 정행권 본부회장(9회 · 협성운수 회장)은 대회를 통해 "용마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재확인하는 기별대항 등산대회는 본부동창회의 빅 이벤트 중의 하나"라며 "이의 활성화는 바로 용마산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준수 용마산악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선수들은 산행대장(오기현 · 20회)의 대회요강 설명을 들은 후 경기가 들어갔다.

성금 · 성품 협찬 내역
△본부동창회=100만원



제5회 본부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등산대회 시상식. 이날 126명의 동문 · 가족들이 기량을 과시했다.

- △한동대(9회 · 용마산악회 명예회장)=30만원
- △정준수(15회 · 용마산악회장)=100만원
- △제병민(13회 · 전 용마산악회장)=30만원
- △채경석(20회 · 오복식품 대표이사)=120만원 상당 시상품.

용 마 바 둑 회

“제4회 동창회장기쟁탈 용마바둑대회” 동문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승을 축하합니다

중년부 우승 제16회
장년부 우승 제23회
청년부 우승 제28회

임원명단	
고 문	한병조(13회) 문운용(14회)
자문위원	임용수(13회)
회 장	김동회(18회)
부회장	송인철(18회) 배서호(20회)
	강수경(21회) 정상건(23회)
	백승엽(27회) 이상용(29회)
총 무	임강택(22회) 백승이(27회)
	이관선(28회) 조남훈(34회)

경 제23회동기회 기우회 축

"제4회 동창회장기쟁탈 용마바둑대회" 장년부 우승

고 문
박영창(초대 회장) 최대일(동기회 회장)

지도사범 임강택(아마 6단)

회 장
하종기(부산) 하종기법무사 사무실
051-501-7422, 011-587-2579

김덕규(서울) 유니엔지니어링 대표
02-2273-5559, 011-774-7809

총 무
정상건(부산) 정상건소아과의원장
051-202-1363, 011-853-4181

황철인(서울)
영사별상사 대표
02-2201-1882, 017-208-5959

회 원(부산 · 울산)
김해생 박두철 박영창 배서호 이동성 이부식 이수백 이영민 임강택 정상건 조현표 주현규 채행운 최성대 최인표 하종기 허용수

회 원(서울)
곽창호 김덕규 김성태 김재봉 박원기 이대우 이종무 최영득 한명경 황철인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시 이후에 부산바둑협회회관(051-863-0361)에서 정기월례회를 개최하오니 동기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